연예

*스로*초등다 2022년 5월 11일

고레에다 감독 "칸 진출은 좋은 한국배우 덕"

일본 명장의 첫 한국영화 연출작 "늘 한국배우와 협업 꿈꿔 왔었죠 송강호는 태양…현장서 밝게 빛나" 아이유 "송강호 선배 칭찬에 눈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세 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 광이죠."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 등 10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점에 무대에 선 배 우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이들은 이날 제작보고회를 연 영화 '브로커'의 주연들. 일본의 대표적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첫 한국영화 연출작에 이름 을 올리고, 18일(한국시간) 막을 여는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 초대장도 받았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브로커'를 6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말 했다. 그리고 작품의 화룡정점을 송강호. 강동원·배두나·아이유·이주영 등 한국 배우들이 찍었다고 밝혔다. 2001년 '디스 턴스' 이후 칸 초청만 여덟 번째, 2018년 '어느 가족'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그는 '브로커'를 올해 칸 국제영화제 에서 선보이게 된 것도 "좋은 배우들 덕" 이라고 강조했다. 늘 훌륭한 한국배우들 과 협업을 꿈꿔 왔다는 그는 "칸 국제영화 제는 몇 번을 방문해도 늘 긴장되는 곳"이 제 할 수 있는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다 안심하고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영화 '브로커'의 주연배우 송강호, 이주영, 아이유, 강동원(왼쪽부터)이 10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 파크몰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라며 쑥스럽게 웃으면서도 "우리 영화를 처음 공개할 최적의 월드프리미어 장소"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태양 같은 송강호"

'브로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 이 익명으로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를 둘러싼 이야기 를 그린다. 감독은 "일본의 '아기 우편 함'이 한국에도 '베이비 박스'라는 이름 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6년 전 이야기를 떠올렸다.

"오랫동안 교류해온 한국배우들과 함

'베이비 박스'를 떠올리게 됐다. 이번 영 화를 준비할 때 가장 처음 떠오른 이미 지가 신부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있는 송강호의 모습이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 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오묘

"놀라웠다"고 그는 말했다.

한 그의 얼굴 말이다."

"촬영이 불안할 때는 그에게 맡기라 귀띔한 봉준호 감독의 말은 과장이 아니 었다. 봉 감독이 '송강호는 태양 같은 존 재다. 현장에서 항상 밝게 빛날 것'이라 고 말했다. 진짜 사실이었다. 그 덕분에

●송강호 "감독 작품 중 특별한 영화"

감독의 칭찬에 송강호도 화답했다. 버 려진 아기의 양부모를 찾아 나서는 자칭 '선의의 브로커'로 나선 그는 "감독님은 오랫동안 존경해온 예술가"라고 입을 열었다.

"감독님의 작품은 늘 차가운 현실 속 에서 따뜻함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 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따뜻하게 시작하지만 냉정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 라보며 끝난다.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도 특별한 영화라 생각한다."

그와 함께 호흡한 강동원과 배두나, 아이유 등 배우들도 연기 변신을 시도 했다.

강동원은 보육원 출신의 '베이비 박 스' 운영 시설의 직원 역을 맡아 오랜만 에 힘을 빼 연기했다. "보육원 출신 사람 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픔에 공감"하며 캐릭터를 준비했다.

아이유는 아이를 버린 젊은 엄마 역을 맡았다. "스모키 메이크업과 탈색 머리 자신의 기대만큼 송강호의 연기는 카락 등 비주얼 변신"도 시도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 복"했다고 그는 말했다.

> "고레에다 감독님, 그리고 훌륭한 선 배님들과 함께 한 것만으로도 기쁘다. 송강호 선배님의 칭찬을 듣고는 눈물까 지 날 뻔했다. 내게 이런 날이 또 있을 까? 하하."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굿바이 강수연…오늘 영결식

8일 차려진 배우 고 강수연의 빈소에 사흘째인 10일까지도 동료 영화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늘 오전 11시 유지태의 사회로 고인의 영결식이 진행된다. 사진은 빈소를 찾은 설경구, 김동호 고 강수연 장례위원장, 김보연, 최명길, 손숙(왼쪽부터) 사진제공 | 고 강수연 배우 장례준비위원회

83kg→45kg···김신영의 '사연 담은 다이어트' 공감 "스포츠 중계 어디서 봤어?"···토종 OTT 중계전쟁

K2 예능 '빼고파'서 비법 대공개 실천하기 쉬운 식단·운동법 화제

"모든 살은 내 통한이었다." 개그우먼 김신영의 '고백'이 수많은 '다 이어터'들의 마음을 웃고 울리고 있다. KB S 2TV 예능프로그램 '빼고파'로 10년간 축적해온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하며 시청 자의 호기심과 공감을 얻고 있다. 기획자 로도 적극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극단적인 몸매 변화가 아닌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춘 덕분이다.

김신영은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숨 겨온 가정사를 털어놓는 데서 시작했다.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한 저장강박이 폭식 을 불러 체중이 83kg까지 불어났다"며 "10년 전 38kg을 빼 현재까지 유지 중"이라 고 말했다. 이어 "'통통이' 캐릭터를 잃어 인 기가 떨어진다"는 주변의 우려도 깼다며 "내가 행복하게 살을 뺐기 때문에 그 비법 을 알리고 싶다"는 기획의도를 밝혔다.

특히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식단짜기 와 운동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청자 들은 그가 물에 헹군 김치와 계란 노른자를



절반만 쓴 '김신영 김밥' 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블로그와 SNS에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실시간 댓글창에서는 "나도 변 하고 싶다"며 다이어트 참여 의지가 이어졌다.

김신영의 코칭에 안무가 배윤정, 배우 고은아·하재숙, 브레이브걸스 유정, 유튜 버 일주어터(김주연), 작곡가 박문치 등도 변화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 '원푸드 다이 어트' 등을 콘텐츠로 담아온 일주어터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진심으로 방송에 임 하고 있다. 당분간 태보 등 운동 관련 콘텐 츠를 업로드하겠다"고 밝혔다. 하재숙은 최근 SNS에서 "세상이 정해놓은 아름다 운 몸매와 동떨어진 사람은 마치 잘못 산 것처럼 몰아가는 시선에 반감이 컸다. 제 작진이 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줬다"면 서 "스트레스 없이 좋은 것 챙겨 먹으며 몸 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출자 최지나 PD는 "출연자들의 다이 어트 전과 후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 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 짚어보는 기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등 적극적 유명 어워즈·K팝스타 공연도 손짓

각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연이 어 스포츠 경기 및 시상식 등을 실시간으로 독점 스트리밍하며 '중계 전쟁'에 불이 붙 고 있다. 국내 OTT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중계에는 눈을 돌리고 있

지 않는 상황에서 토종 OTT들이 중계권을 확보를 통해 이용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유럽 축구 선수권, 카타르월드컵 예선, A FC 여자아시안컵,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등 을실시간 중계했던 티빙은 세계 3대 이종 종 합격투기 대회로 꼽히는 UFC 대회를 8일부 터 독점 중계하고 있다. 라이트급 타이틀 매 치 찰스 올리베이라 대 저스틴 게이치 전을 시작으로, 파이트 카드의 언더부터 메인까

지 경기와 이벤트를 모두 내보낼 예정이다. 2020 도쿄올림픽을 생중계하고 하이라 이트 경기 영상까지 서비스했던 웨이브는 시즌과 함께 올해 KBO 프로야구를 생중 계에 나서고 있다.

스포츠 중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OTT는 쿠팡플레이다. 일찌감치 손 흥민, 이강인, 황의조, 김민재 등 해외리그 길을 끌었다.

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소속팀 경 기를 생중계 하며 축구 팬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까지 찍은 쿠팡플레이는 월드컵 경 기한국프로축구연맹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5일부터 K리그 전 경기를 생중계를 하고 있다. 7월에는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 트넘 홋스퍼 FC를 초청해 K리그와 친선경 기까지 주최한다.

쿠팡플레이 관계자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폭을 확장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며 스포츠 중계를 자사의 킬러콘텐츠로 앞세웠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시상식 및 각종 공연도 실시간 스트리밍하며 차별화된 콘 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티빙과 왓챠는 각 각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그래 미 시상식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생중 계 해 케이(K)팝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쿠팡플레이는 세계적 밴드인 콜드플레 이의 공연을 라이브 스트리밍한데 이어 에 미넴, 스눕 독, 메리 제이 블라이즈, 케드 릭 라마, 닥터 드레 등 팝스타들이 총출동 한 슈퍼볼(미국 미식 축구 리그 NFL의 결 승전) 하프 타임 쇼까지 실시간 중계해 눈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임지연 "데뷔 11년 만에 첫 장르물 도전"

티빙 '장미맨션' 주연…4년 만에 복귀 "캐릭터 매력적…다른 모습 보여줄 것"



배우 임지연이 4년 만에 주연드라 마를 내놓는다. 13일 OTT(온라인 동 영상 서비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장미맨션'을 공개하며 2019년 방송 한 MBC '웰컴2라이프' 이후 오랜만 에 시청자와 만난다.

그는 극중 사라진 언니를 찾기 위 해 언니가 살던 아파트 장미맨션으로

돌아온 호텔리어를 맡았다. 형사 윤균상과 언니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면서 평범해 보였던 이웃들의 탐욕을 마 주해가는 과정을 스릴러 장르로 그려간다. 조달환, 이미 도, 김도윤, 정애리 등 베테랑들이 수상한 이웃들을 연 기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장르드라마에 도전한다. '장 미맨션'은 선혈이 낭자하는 잔인한 장면들이 일부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최근 코미디 등 밝은 분위 기의 드라마가 안방극장의 새 트렌드로 떠오르는 상황임 에도 "새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출연을 결정했다. 그는 10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수동적이지 않고 스스 로 행동하는 캐릭터가 멋졌다"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 여드릴 수 있다는 점도 끌렸다"고 설명했다.

파격적인 소재에 망설임 없이 도전해온 그간 행보도 그대로 이어간다. 임지연은 영화 '인간중독', '간신' 등 에서 수위 높은 노출 연기를 선보였다. 지난해 내놓은 영화 '유체이탈자'로는 강도 높은 액션도 펼쳤다. 안방 극장에서는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사극 '대박' 등 폭 넓은 장르를 소화했다. 이후 6월 24일과 내년 초 넷플 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공동경제구역'과 '더 글로리'를 내놓는다.

임지연은 "대본을 보며 '이게 무슨 일이야?'라는 말 만 반복했다.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계속 궁금해졌다" 면서 "나만큼 시청자도 금세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드라마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i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댓 댓' 싸이. 7년 만에 빌보드 차트 진입



싸이·슈가

가수 싸이가 방탄소년단의 슈가 와 함께 만든 노래 '댓 댓'(That That)으로 7년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재진입했다. 10일 빌보드 공식 차트에 따르면 '댓 댓'은 메 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80위에 올랐다. '글로벌 200'와 '톱 셀링

송즈'에서도 각각 2위에 올랐다. 싸이는 2012년 '강남스 타일'로 7주간 '핫100' 2위를 차지한 뒤 2013년 '젠틀맨 (5위), 2014년 '행오버'(26위), 2015년 '대디'(97위) 등으 로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알렉사 NBC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우승



가수 알렉사가 미국 NBC 오디션프로 그램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에서 우 승했다. 미국 TV 오디션프로그램에 서 케이(K)팝 가수가 우승한 건 이번 이 최초다. 알렉사는 10일(한국시간) 오전 열린 결승전에서 고향인 오클라

알렉사

호마 주 대표로 참석해 1위에 올랐다. 마이클 볼턴, 메이시 그레이 등 유명 팝가수들과 경합해 거머쥔 성과여서 현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청와대 개방특집 'KBS 열린음악회'

KBS 1TV '열린음악회'가 22일 오후 7시 30분 청와대 본 관 앞 대정원에서 열린다. 이번 방송은 청와대 개방특집으 로 마련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KBS 교향악 단과 다양한 예술가들이 국악, 클래식, 대중가요, 무용 등 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보건 의료진, 한 부모 다문화 가정, 인근 주민 등 500여명이 초 청되고, 약1500석은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

